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지원 절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오존층이 무엇인지 관심 없이 있었다. 오존층만이 아니라 대기오염이라는 것도 그 개념이 막연하였고, 심지어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폐수가 마치 근대화산업의 산물인 양 자랑스럽게 여기던 때도 있었다.

최근 전문가들은 이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해없는(또는 적은)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생산자의 과제)

둘째, 쓰는 양을 줄이는 것(사용자의 과제)

셋째, 다시 쓰기(재활용)로 이는 생산자와 사용자 공동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제시된 3개항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첫째항은 생산공장에서 사활을 걸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둘째항은 주부 클럽·소비자 보호단체·환경운동연맹 등에서 계몽운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셋째항에 관련된 것이고 플라스틱 분야에 관한 것이다.

플라스틱이 개발된 지는 불과 1백년도 안 되었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첨단과학인 우주공학·반도체·전자공학·의학 등을 비롯하여 자질구레한 일상생활의 생필품까지 깊숙이 연계됐다.

지금 이 시점에서 플라스틱이 없는 생활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넓게 응용되고 필수화된 것이다. 아마 이렇게 급속도로 플라스틱이 확산된 이유는 그것이 가진 경제성과 성능 때문일 것이다.

성능 중에서도 특히 장점으로 인정되어 온 불변 내구성은 오늘날 환경문제가 거론되기 이전에는 인간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각광받았다. 적당히 유지되어지고 버려지는 시점에서는 무공해물질로 분해되면 좋으려만 플라스틱은 미련스럽게도 3백년 이상의 불변을 주장하다가 공해물질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류에게 대단히 공헌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을 어떻게 다루어야 후환이 없겠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개발해야 한다. 필요할 때 긴요하게 쓴 것에 대한 보답으로 성의있게 버려준다면 재활용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유익한 자원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재활용 자원이 되는가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재활용되는 3단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이 3단계는 △원료로 다시 쓰는 법 △원유로 되돌리는 법 △연료로 쓰는 법이 있는데 그 효과와 경제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재활용되어 자원으로 되돌아오는 결과임은 틀림없다. 물론 분리수거가 이뤄짐을 전제로 하고 말이다.



오원석

동성화학공업(주) 대표이사

첫번째, 원료로 다시 쓰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한 일이고 효과도 만점이지만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불만이 있다.

플라스틱을 원료로 다시 쓰려면 같은 종류로 분류된 것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공장 등에서 나오는 단일스크랩 밖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활발하지만 다만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허가 사항'이란 이상한 법이 우리 나라에만 있어서 자원 재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

두번째는 원유로 되돌리는 방법인데 최근에 개발된 기술로서 선진국에서 시험 가동되고 있다.

플라스틱이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니 다시 석유로 환원해 보겠다는 착상에서 출발하여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종류별 분류가 필요없이 수집된 폐플라스틱은 그대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 단점이라면 생산된 기름값이 원유로 사오는 값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는 관심이 가는 기술인데 버려져서 공해물질로 떠돌아 다니는 것을 수집만하여 기계에 넣으면 기름이 되어 나온다니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석유에 대해 한 맺힌 국민인데 이 사실을 알고 누가 함부로 플라스틱 제품을 마구 버리겠는가. 정성껏 모아 기름짜는 기계로 보내야겠다.

세번째 방법은 연료로 쓰는 방법인데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분리수거된 폐플라스틱 90% 이상이 연료로 쓰이고 있다. 폐플라스틱 1kg과 중유 1리터(약 1kg)는 똑같이 약 9천칼로리의 열을 낼 수 있는 연료인 것이다. 기름을 전량 수입해야 하고 연료가 절대로 필요한 우리 나라에서 이 좋은 연료를 땅 속에 다 묻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년센스이다.

최 근 우리도 열병합 발전소 건립 등 열원 재활용 계획이 실천되고 있으니 머지 않아 연료로서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 사실이 정확히 홍보가 되면 국민은 누구나 신이 나서 폐플라스틱을 연료화하는 데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다.

원유로 환원시키는 방법이나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 등에서 늘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 원가문제와 설비투자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으나 이는 플라스틱이 사회 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공로를 감안하여 과감한 정책적 배려로 큰 계획이 있어야겠다.

또한 국민은 모두 석유를 건져낸다는 신나는 자긍심을 갖고 참여토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버리면 공해, 모으면 자원'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이라는 일석이조의 큰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는다.